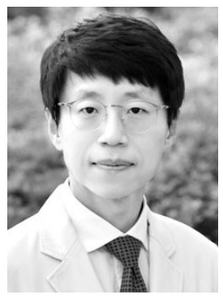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에세이집 출간

크론병 투병·환자이야기 담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수영〈사진〉 교수가 수술실 안과 밖의 이야기를 풀어쓴 '메스를 손에 든 자(푸른향기 간)'를 펴냈다.

대장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자 크론병을 앓는 환자이기도 한 그는 책을 통해 15년 동안 만난 수많은 환자와의 소중한 시간과 대학병원 외과 의사의 치열한 병원 일상을 전하고 있다.

또 수술실에서 살려낸 환자들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환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외과 의사로서의 고뇌와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교수는 'Part 1. 외과의사 이야기'에서 크론병을 앓고 있는 자신이 크론병을 치료하고 크론병에 대해 가르치는 대장항문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과정, 모두가 기피하는 외과 의사로서의 고통과 기쁨,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Part 2 환자이야기'에서는 부모 앞에서 서른 살 아들에게 내리는 시한부 선고, 대장암 말기 환자의 배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배를 닫아야 하는 상황 등의 가혹한 현실과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수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한미수필문학상 우수상과 장려상,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은상 및 동상 등을 받았으며, EBS×브런치 '나도 작가다' 공모전을 비롯해 윌라×브런치 브런치북 오디오북 출판 프로젝트 등에도 당선됐다. 현재 브런치에서 'Zero'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다.

이수영 교수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를 보고 있으면, 신을 향해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고 환자로부터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의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내가 수술실로 돌아가 메스를 잡는 이유"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제조창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개소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12일 '메이커스페이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사진〉

메이커스페이스는 제조 창업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조선대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오는 2026년까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약 32억원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영돈 총장,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 김도영 플리마코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선대 메이커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양산 등 전문 메이커 문화 확산 활동을 지원해 제조·창업을 촉진하고 혁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광주·전남지역 거점 전문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조선대 입석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카페블랙·우수영밧데리할인점 희망풍차 나눔기업 정기후원 가입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카페블랙(대표 강영자)와 우수영밧데리할인점(대표 김영진) '희망풍차 나눔기업' 정기후원에 가입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카페블랙과 우수영밧데리할인점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달 3만원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희망나눔 사업장'은 우리동네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의 사업장(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 매월 일정금액(월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대한적십자사 대표 나눔 확산 캠페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월곡 영천초서 구강보건교육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치위생학과는 최근 마음나눔 전공연계 사회봉사를 위해 광산구 월곡동 영천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올바른 칫솔질교육과 바른 식이지도와 구강관리방법을 교육했다. 〈광주여대 제공〉

웃음적십자봉사회, 홀몸노인 주택 수리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웃음적십자봉사회(회장 최순덕) 봉사원 10명은 순천시 도사동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의 집을 방문, 타일·벽지·전등 교체 등 주택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웃음적십자봉사회 제공〉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회장 220인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송자〈사진〉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 회장이 전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시민사회단체 1호로 전남 나눔리더에 가입한 이송자 회장은 전남 사랑의열매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전남지역 나눔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주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만담 다큐 호수인(재)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이야기	00 애니갤러리 30 나비의 모험 45 헬로카봇 13 젬
12	00 KBS 뉴스 12	1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낭만닥터 김사부 3(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인앱(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장바구니 집사들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아이 러브 스포츠		
12	00 시사기획 창(재) 50 KBS네트워크특선 고지식 만담회	15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시몽
07:15 하프와 친구들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7:45 엄마 까투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숲이 그린 집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재)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마샤와 곰
17:20 타타와 쿠마
17:25 뽀롱뽀롱 뽀로로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18:10 뽕뽕빵빵 부부맨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배우 고주원·배나영의 전남 신안길 3부 무지갯빛 무한의 힐링〉
19:20 고향민국
19:50 귀하신 몸(재)
20:40 세계테마기행
21:35 한국기행
〈동해로 떠나요 3부 도시 어부의 동해 정착기〉
21:50 다큐멘터리K
22:50 만국견문록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4일(음 4월 26일 癸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48년생 점점 복잡다단해지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낳는다. 60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72년생 암시하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84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입항할 수 있느니라. 96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의외의 행운이 따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9, 86

丑 37년생 잘하다가도 일순간에 방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49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61년생 주도면밀한 판단력이 절실하다. 73년생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85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97년생 결과를 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2, 91

寅 38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50년생 길상의 징후가 조응하고 있도다. 62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74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86년생 약하게 대응한다면 잃게 될 수도 있다. 98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52, 84

卯 39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51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63년생 알뜰하다면 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75년생 매끄럽지 못하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87년생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갈 수도 있다. 99년생 참신해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0, 62

辰 40년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52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64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76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88년생 수고로운 일이 드러나지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처지이다. 00년생 적합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9, 93

巳 41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53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65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77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89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 01년생 어지간하면 나서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4, 81

午 42년생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54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66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78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0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02년생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다. 행운의 숫자 : 09, 56

未 43년생 활로가 트이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니 마지막을 주목하라. 55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67년생 선택을 잘못 한다면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79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 세밀하게 찾아 본 후에 대처하라. 91년생 말만 잘하면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다. 03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2, 60

申 44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56년생 마무리만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68년생 경중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야 할 때이니라. 80년생 동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92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04년생 지나치다보면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6, 88

酉 45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57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라. 69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81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93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05년생 합리성을 좇는다면 만사가 무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66

戌 34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임을 알라. 46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던 것이 눈 앞에 펼쳐지리라. 58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70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도다. 82년생 역경은 경험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니라. 94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행운의 숫자 : 00, 79

亥 35년생 어제보다는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47년생 수박 겉핥기식은 무의미하니 핵심 속성을 인식하자. 59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71년생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83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95년생 실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5, 50